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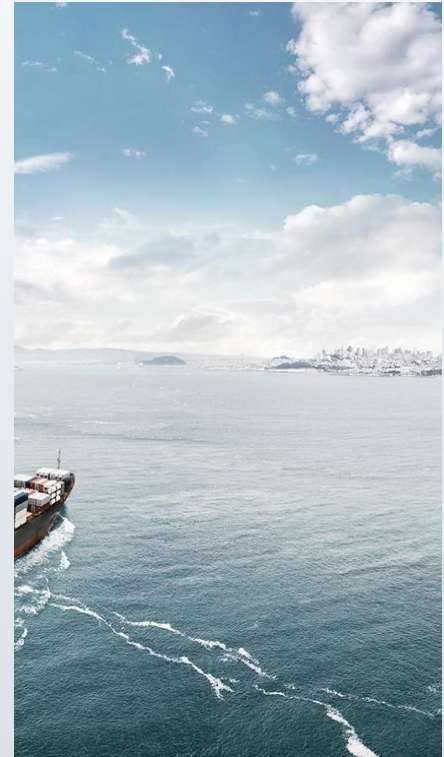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95

April 05, 2022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5
Tankers	10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9
Issue & Trend	21
Contact Details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우크라이나 사태에 LNG 선 용선주들, '용선기간 길~게'

LNG 선 용선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지레 겁을 먹었는지 선박 용선기간을 아예 5~10 년으로 늘리려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우려 등을 감안해 노르웨이의 FLEX LNG 의 경우 용선기간을 길게 잡고 있다.

이 선사의 CEO 오브스타인 칼레크레프(OVSTEIN KALLEKLEV)는 "요즘 들어 5~10 년간 용선하겠다며 문의를 해오는 용선주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NG 선 용선기간을 늘리는 것은 좀체 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최근 운임 폭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 월 북반구의 봄여름을 앞두고 운임이 하루 30 만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다 지난달 24 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 LNG 바이어들이 LNG 화물을 수배하기 시작하면서 운임이 터무니없이 급등했다.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있는데다 독립 선주사의 선박들을 용선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운임 상승의 원인이 됐다.

용선주들은 특히 앞으로 시행될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탄소집약도(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성능이 좋은 신형 LNG 선을 찾고 있다.

2. 해수부 인수위 업무보고 "글로벌 해운역량 구축"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I . NEWS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 2 분과는 지난 25 일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 등 인수위 경제 2 분과 왕윤종·유응환·고산 위원, 해양수산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해수부에서는 각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는 해수부 일반현황 및 그간의 핵심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 △국적선사와 수출입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물류 위기 극복 △스마트 항만물류시스템 구축 △해운물류분야 인재 양성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 △양식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안심소비체계 강화 △어촌지역 활력증진방안 △청년 귀어귀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해 △영해 관리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해양사고 저감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해양수산업의 균형발전 방향과 전국 해양·연안지역의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인수위원들은 해운물류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항만들이 글로벌 허브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리조선소, LNG 벙커링 등 복합 항만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방안을 요청했다.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여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I . NEWS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수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당선인의 해양수산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이 반영된 국정과제들을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과 신해양강국 대도약'이라는 해양수산분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친환경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이 포함된다.

<윤 당선인 해양수산 공약 내용>

◆ 친환경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 △친환경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표시제 단속 강화
 -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원스탑플랜 수립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 △스마트 양식기술개발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로 행복어촌 만들기
 - 지역 주민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어촌·수산업 활력 증진
- △교통·의료 등 도서지역 주민 필수 복지서비스 확대
- △청년어업인을 위한 주택·자금·어업기술 종합지원 확대

◆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 △연안침식 대비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사안전관리, 사고 방재역량 제고

◆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I . NEWS

- △저탄소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 확대와 연구 개발 지원
-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벨리 조성과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개발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 △해양과학조사 등을 통한 독도영유권 공고화
- △접경지역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선과 무인도서 관리 강화

3.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와 동일한 신용등급 유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부여했다.

공사에 따르면, 세계 3 대 신용평가 기관인 FITCH RATINGS 은 3 월 29 일 공사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A- 안정적'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등급서에 따르면 FITCH 는 공사가 변동성이 높은 해운업에 대한 차별화된 금융·보증 정책업무 수행하는 점, 유사 시 정부 보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등급 산정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또 지난해부터 국제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정부와 동일한 장기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운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선박금융 지원 등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이 높게 평가된 결과로 해석했다.

한편, 공사는 국적선사에 대한 선박금융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500 억원의 ESG 채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선박도입과 선사의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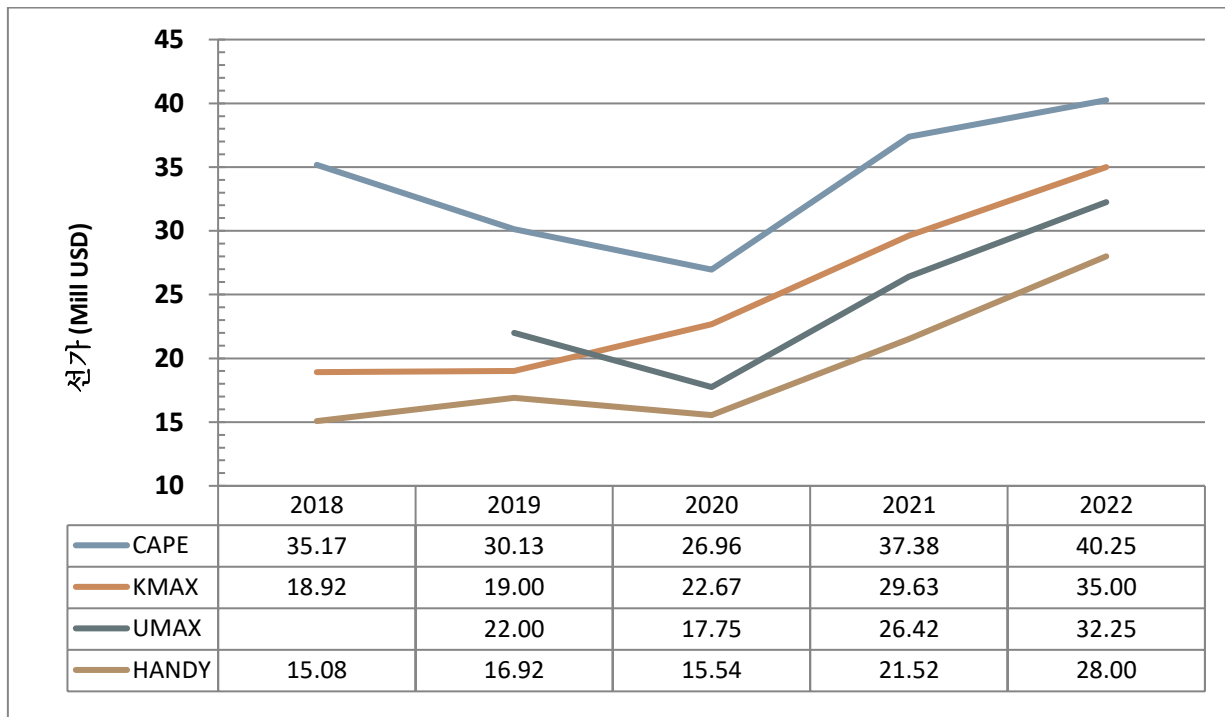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size (180K)	35.17	30.13	26.96	37.38	40.25
	11.20%	-14.34%	-10.51%	38.64%	7.69%
Kamsarmax (82K) (*based on 76K until 2019)	18.92	19.00	22.67	29.63	35.00
	6.82%	0.42%	19.30%	30.70%	18.12%
Ultramax (60-61K) (from 2019)		22.00	17.75	26.42	32.25
			-19.32%	48.83%	22.08%
Supramax (58K) (until 2020)	17.92	17.17	15.92		
	9.69%	-4.20%	-7.28%		
Handysize (37K) (*based on 32K until 2018)	15.08	16.92	15.54	21.52	28.00
	9.37%	12.18%	-8.13%	38.47%	30.11%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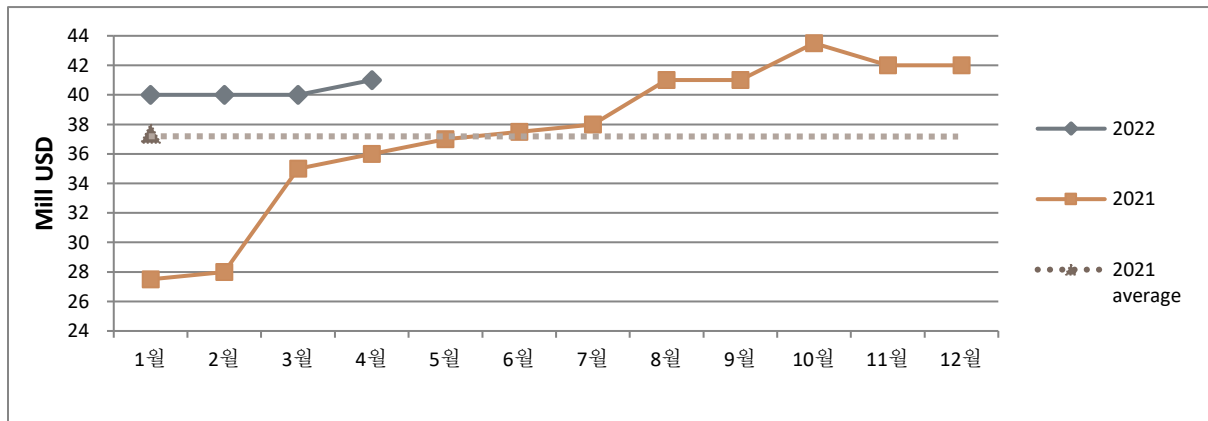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CAPE (180K)	선가	40.00	40.00	40.00	41.00			40.25
	전월대비	-4.8%	0.0%	0.0%	2.5%			--
	전년대비	45.5%	42.9%	14.3%	13.9%			7.7%
KMAX (82K)	선가	34.00	34.50	35.50	36.00			35.00
	전월대비	3.0%	1.5%	2.9%	1.4%			--
	전년대비	41.7%	38.0%	31.5%	33.3%			18.1%
UMAX (60-61K)	선가	30.50	32.50	33.00	33.00			32.25
	전월대비	1.7%	6.6%	1.5%	0.0%			--
	전년대비	52.5%	58.5%	46.7%	46.7%			22.1%
HANDY (37K)	선가	27.50	28.00	28.00	28.50			28.00
	전월대비	7.8%	1.8%	0.0%	1.8%			--
	전년대비	86.4%	72.3%	45.5%	42.5%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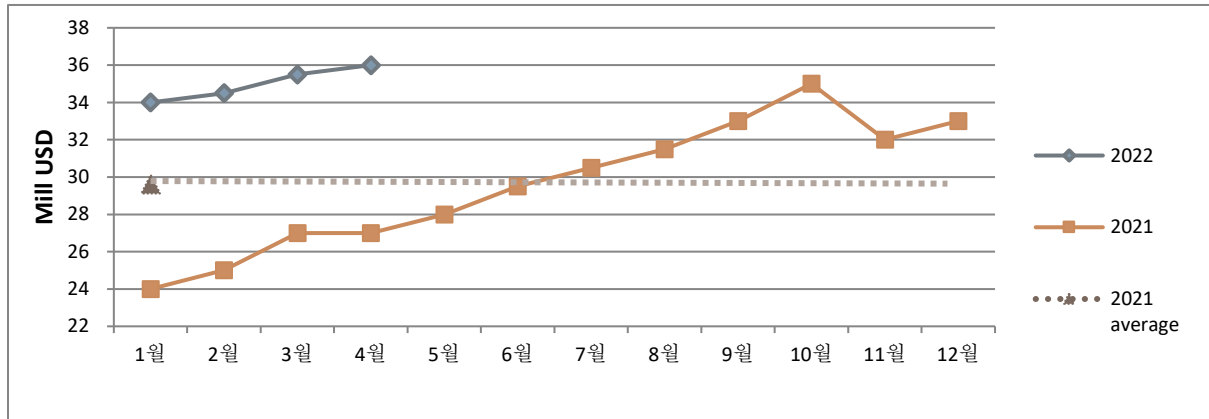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CAPE (180K)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7.38
KMAX (82K)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29.63
SMAX (58K)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6.42
HANDY (37K)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1.5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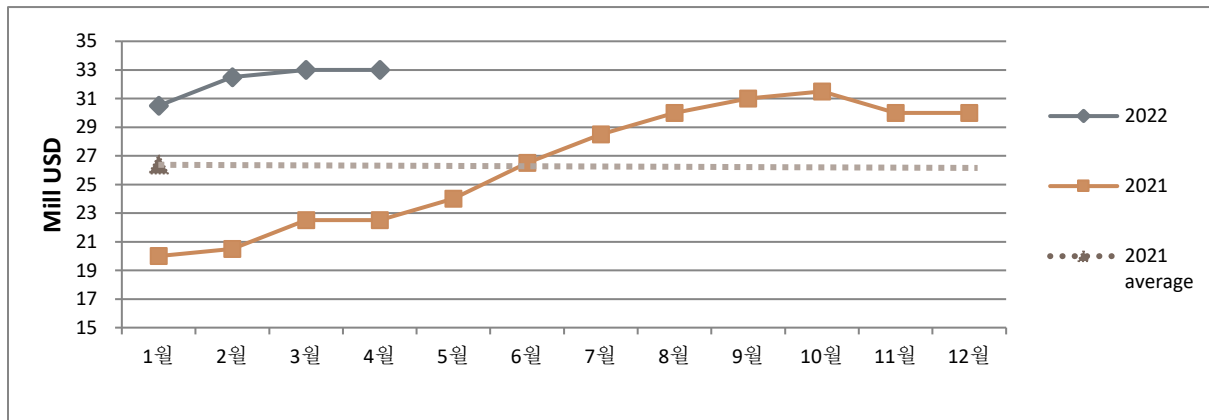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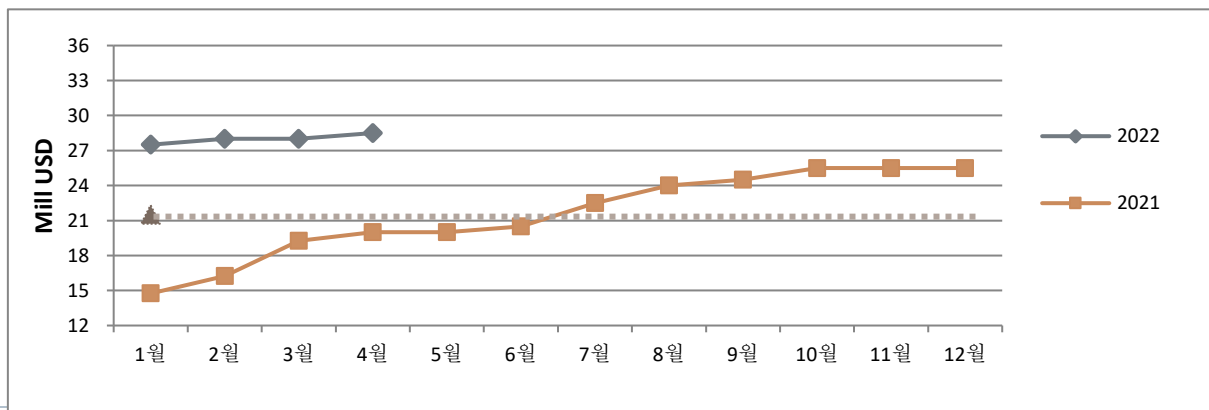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FRONT FORCE	305,442	2004	KOREA	B&W		34	Undisclosed buyer
BC	FRONT ENERGY	305,318	2004	KOREA	B&W		34	Undisclosed buyer
BC	JIN FAN	93,069	2012	CHINA	CAT		18.62	Chinese buyer, online auction
BC	XIN YUAN	91,439	2002	JAPAN	MITSU		14.8	Undisclosed buyer
BC	AZUR	82,282	2007	JAPAN	B&W		20.5	Undisclosed buyer
BC	ROSCO LITCHI	82,200	2011	CHINA (JPN)	B&W		25	Undisclosed buyer
BC	MAJESTIC SKY	81,949	2014	JAPAN	B&W		31.5	Greek buyer
BC	MARIBELLA	76,629	2004	KOREA	B&W		14.8- 14.9	Chinese buyer
BC	EVERSHINE	75,933	2000	JAPAN	B&W		12	Chinese buyer
BC	PENG DE	64,485	2014	CHINA	B&W		25.5	HK based buyer (Jinhui)
BC	NICON FORTUNE	63,562	2019	JAPAN	B&W	C 4x30.7t	30.5	Greek buyer
BC	MANDARIN OCEAN	56,741	2012	CHINA	B&W	C 4x36t	17.25	Singaporean buyer
BC	JIN FA	56,699	2012	CHINA	B&W	C 4x30t	17.9	Chinese buyer
BC	MANDARIN CROWN	56,400	2012	CHINA	B&W	C 4x30t	17.25	Chinese buyer
BC	VEGA ROSE	55,711	2007	JAPAN	B&W	C 4x30.5t	18	Undisclosed buyer
BC	NERAIDA	55,567	2005	JAPAN	B&W	C 4x30t	17.5	Chinese buyer
GC	EVER AMPLE	50,029	1998	JAPAN	MITSU	C 3x14.5t	8.25	Undisclosed buyer, woodchip
BC	OCEAN IBIS	38,486	2013	JAPAN	B&W	C 4x30t	24.5	Undisclosed buyer, open hatch
BC	NONG LYLA	33,773	2004	JAPAN	MAN	C 4x30t	11.6	Undisclosed buyer
BC	S BRAND	33,745	2004	JAPAN	B&W	C 4x30t	13	Chinese buyer
BC	ECO DYNAMIC	32,353	2005	JAPAN	MITSU	C 4x30t	14.3	Greek buyer
BC	NIKOLAOS GS	28,616	2002	JAPAN	B&W	C 4x30t	9.1	Undisclosed buyer



II . BULK CARRIER

BC	MOUNT ADAMS	28,487	2002	JAPAN	MITSU	C 4x30.5t	9.8	Undisclosed buyer
BC	PORT BOTANY	28,470	2001	JAPAN	B&W	C 4x30.5t	8.8	Undisclosed buyer
BC	SINOWAY ACT	28,361	2008	JAPAN	B&W	C 4x30.7t	13.9	Greek buyer, log fitted
GC	MERCURY TRIUMPH	13,110	2006	JAPAN	B&W	C 2x78t, C 2x30t	9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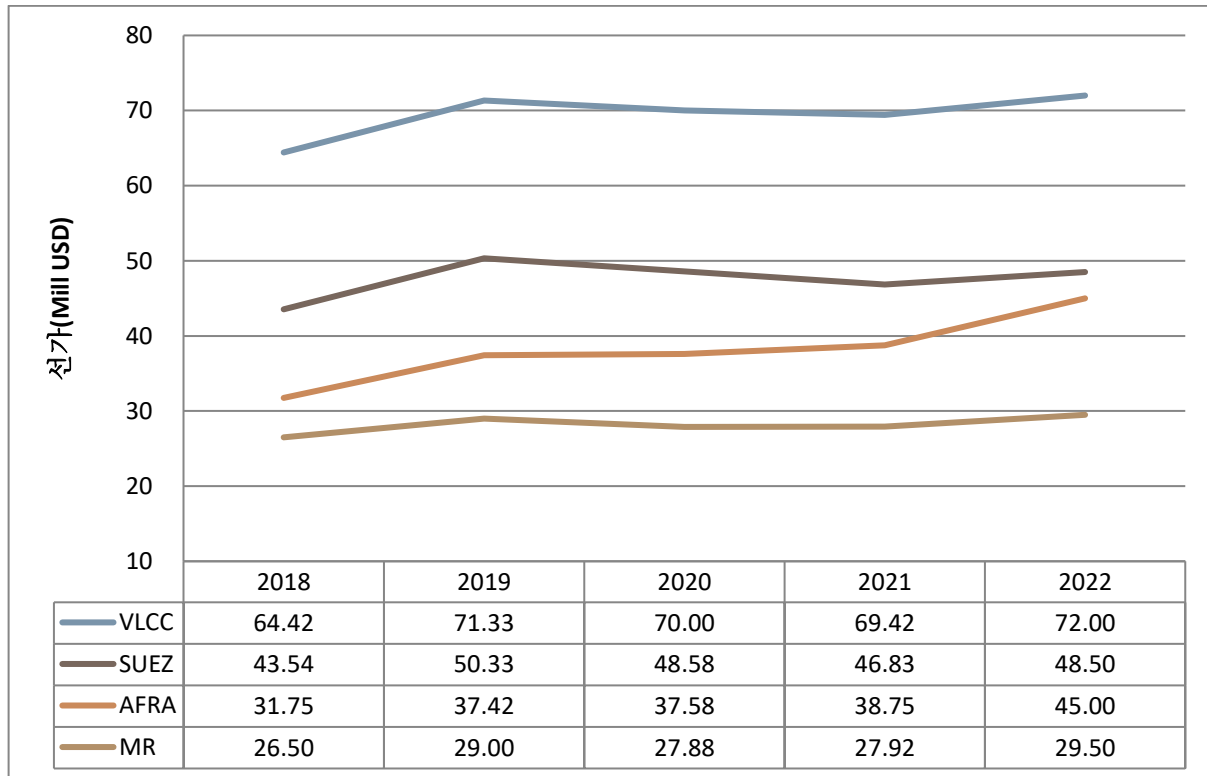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310K)	64.42	71.33	70.00	69.42	72.00
	2.11%	10.73%	-1.87%	-0.83%	3.72%
Suezmax (160K)	43.54	50.33	48.58	46.83	48.50
	5.45%	15.60%	-3.48%	-3.60%	3.56%
Aframax (105K)	31.75	37.42	37.58	38.75	45.00
	4.81%	17.85%	0.45%	3.10%	16.13%
MR (51K) *18년까지는 49K 기준	26.50	29.00	27.88	27.92	29.50
	11.38%	9.43%	-3.88%	-0.15%	5.67%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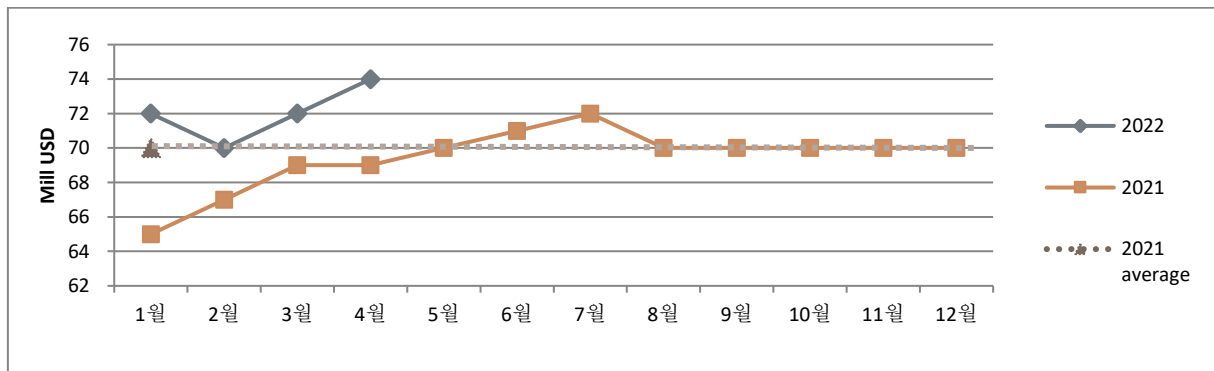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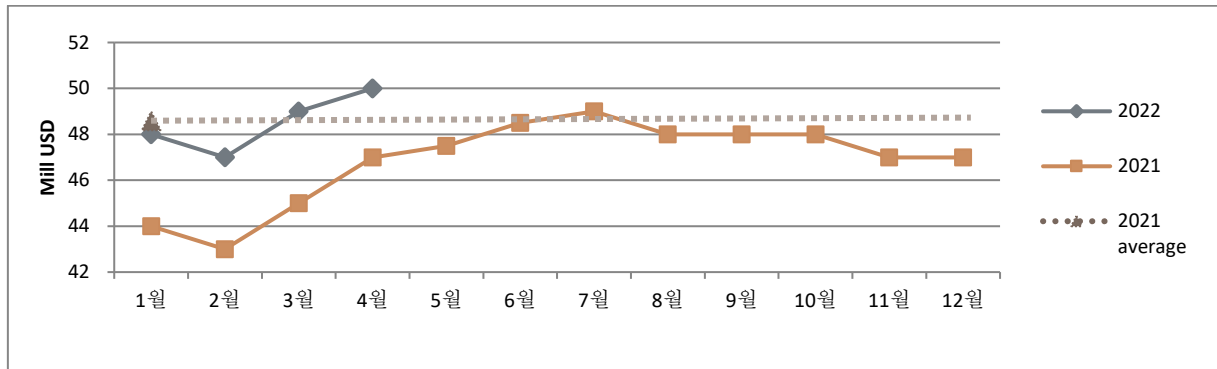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VLCC 310K	선가	72.00	70.00	72.00	74.00			72.00
	전월대비	2.9%	-2.8%	2.9%	2.8%			-
	전년대비	10.8%	4.5%	4.3%	7.2%			2.9%
SUEZ 160K	선가	48.00	47.00	49.00	50.00			48.50
	전월대비	2.1%	-2.1%	4.3%	2.0%			-
	전년대비	9.1%	9.3%	8.9%	6.4%			-0.2%
AFRA 105K	선가	45.00	45.00	45.00	45.00			45.00
	전월대비	9.8%	0.0%	0.0%	0.0%			-
	전년대비	36.4%	36.4%	21.6%	12.5%			19.7%
MR 51K	선가	30.00	30.00	29.00	29.00			29.50
	전월대비	3.4%	0.0%	-3.3%	0.0%			-
	전년대비	9.1%	9.1%	5.5%	5.5%			5.8%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연 평균	
VLCC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0.00	
SUEZ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8.58	
AFRA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37.58	
MR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88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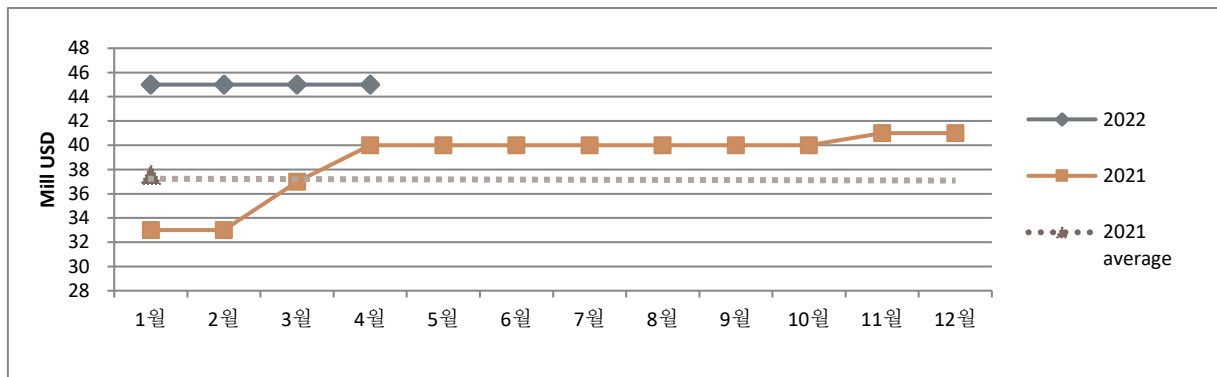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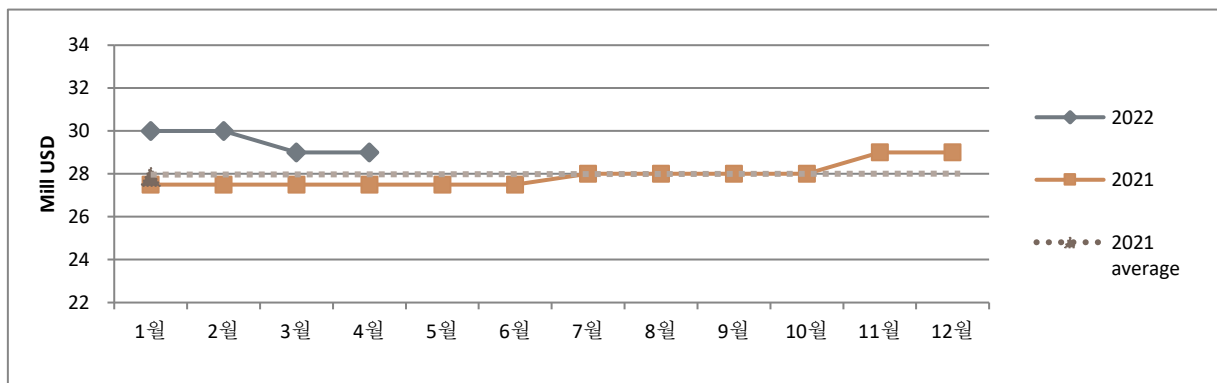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TOKIO	306,200	2005	JAPAN	MITSU		31.5	Chinese buyer
TANKER	EASTERN JUNIPER	305,749	2007	KOREA	B&W		35	Undisclosed buyer
TANKER	NORDIC PASSAT	164,236	2002	KOREA	B&W		15.5	Undisclosed buyer
TANKER	17 FEBRUARY	160,391	2008	KOREA	MAN		46-2EB	Undisclosed buyer
TANKER	LIBYA	159,233	2007	KOREA	B&W			
TANKER	BARI	159,186	2005	KOREA	B&W		21.5	Undisclosed buyer
TANKER	DA YUAN HU	159,149	2004	CHINA	B&W		16.5	Undisclosed buyer
TANKER	STI CARNABY	110,000	2015	CHINA	B&W		43	Turkish buyer (Advantage Tankers)
TANKER	STI SAVILE ROW	110,000	2015	CHINA	B&W		43	
TANKER	PROVIDENCE	54,784	2008	KOREA	B&W		46.5	Indonesian buyer (Foresight)
TANKER	STI BENEZIA	52,000	2014	CHINA	B&W		26.5	European buyer
TANKER	MAERSK TOKYO	49,687	2016	CHINA	B&W	2&3	31	Undisclosed buyer
TANKER	VS RIESA	34,557	2003	CHINA	B&W		5.85	Undisclosed buyer
OIL/CHEM	DL VIOLET	13,093	2007	CHINA	B&W	2	5	Vietnamese buyer
OIL/CHEM	DL ASTER	13,079	2007	CHINA	B&W	2&3	4.8	Vietnamese buyer
LPG	COPERNICUS	54,656	2015	KOREA	B&W		70	Japanese buyer
LPG	CRATIS	54,656	2015	KOREA	B&W		70	Japanese buyer
CHEMICAL	HAFINA SOL	25,200	2017	JAPAN	B&W		33.3	Netherlands buyer (ACE Tankers)
CHEMICAL	HAFINA SPECTRUM	25,200	2017	JAPAN	B&W		32.3	



III. TANKER

CHEMICAL	HAFINA SAIPH	25,200	2017	JAPAN	B&W	31.4	Netherlands buyer (ACE Tankers)
CHEMICAL	HAFINA SPICA	25,200	2017	JAPAN	B&W	32.6	
CHEMICAL	HAFINA SPARK	25,200	2016	JAPAN	B&W	30.9	
CHEMICAL	HAFINA SKY	25,200	2016	JAPAN	B&W	30.5	
CHEMICAL	HAFINA SIRIUS	25,200	2016	JAPAN	B&W	30.2	
CHEMICAL	HAFINA STELLAR	25,200	2016	JAPAN	B&W	31.2	



III. TANKER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TALISKER	18,400	2001	POLAND	B&W	1,129	TEU	17	Swiss buyer (MSC)
CONT	PROS FORTUNE	6,272	1999	KOREA	MAN	411	TEU	--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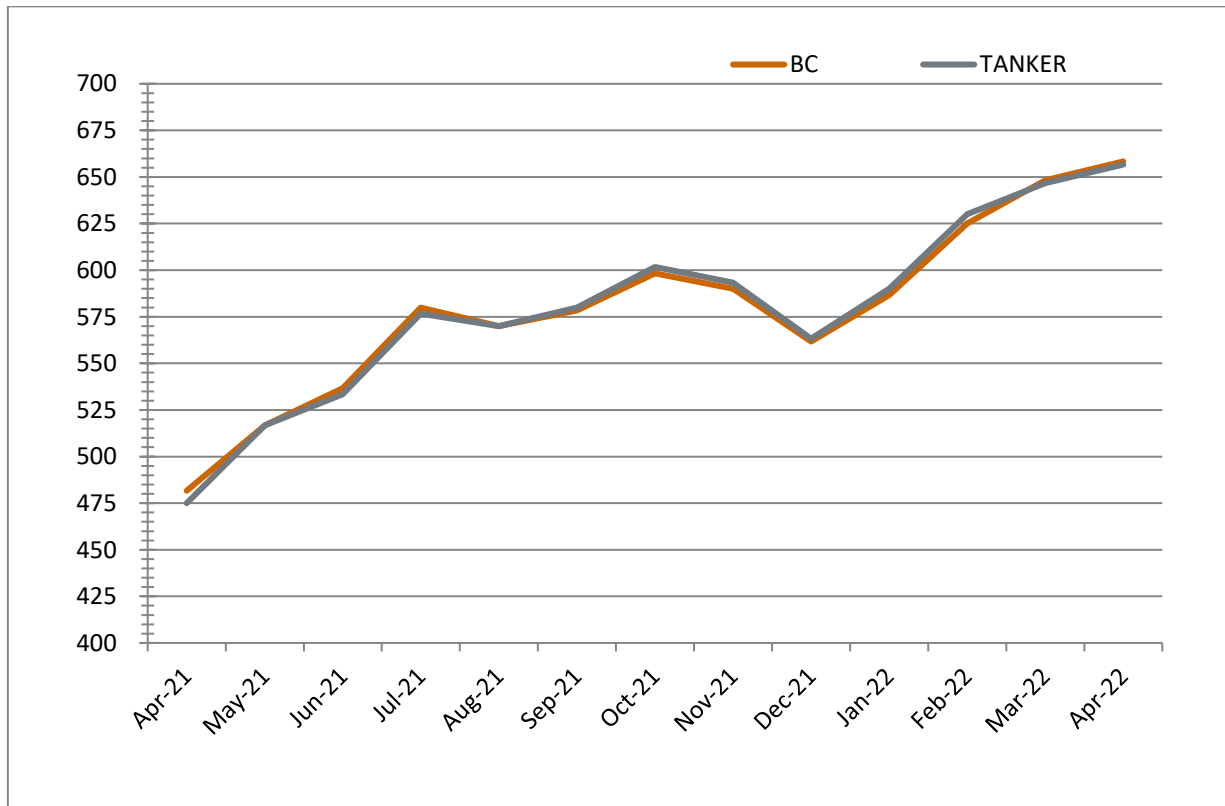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2021.04	2022.04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44.44	-13.1%	526.81	52.9%	630.83	19.7%	475.00	656.67	1.5%	38.2%
BC	344.58	-13.6%	529.17	53.6%	629.58	19.0%	481.67	658.33	1.5%	36.7%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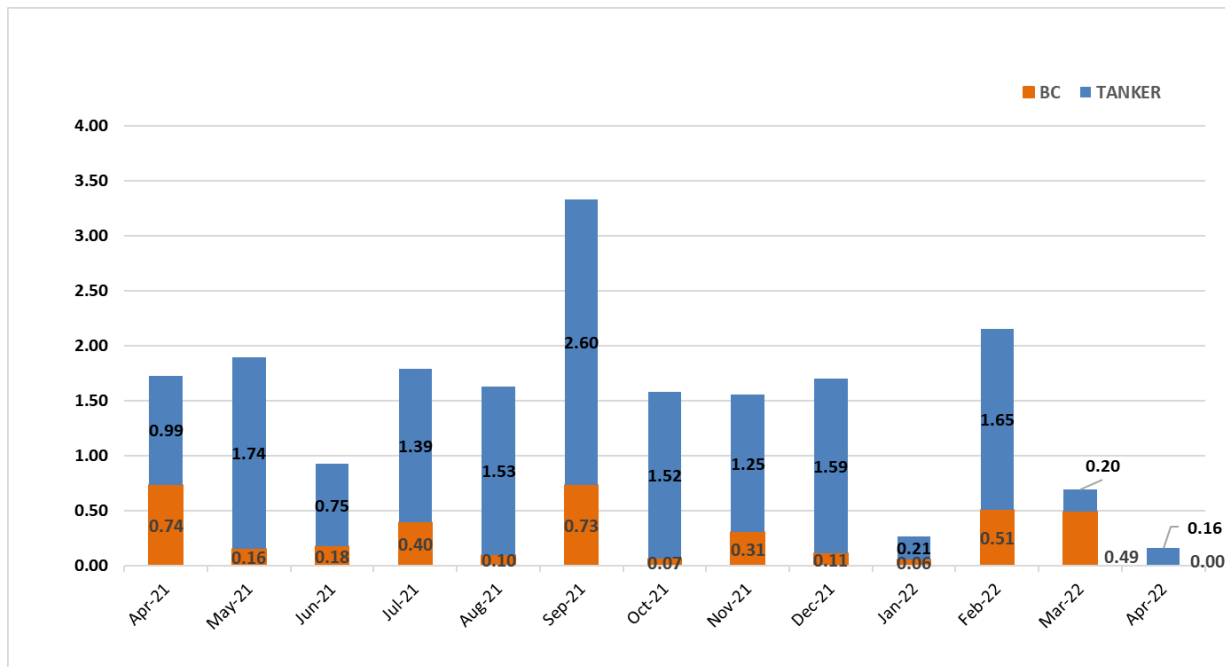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0		2021		2021.04		2022.04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68	112	15.66	315	0.99	25	0.16	-83.9%	1	-96.0%
BC	15.61	164	6.34	123*	0.74	21	0.00	-100.0%	0	-100.0%

*including Bulk &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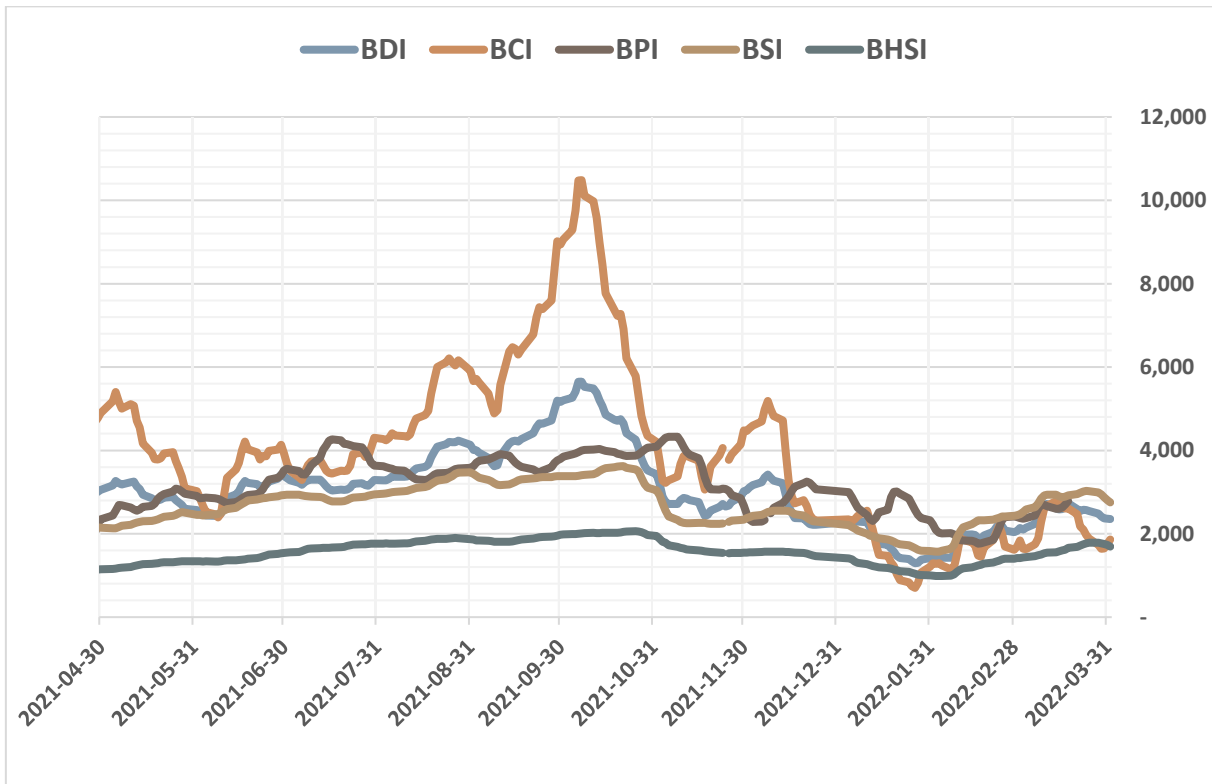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HEM	BOW FLOWER	37,200	11,043	1994	UK	B&W	1,310	INDIA, Incl. high stst content
TANKER	SCF URAL	159,314	23,313	2002	KOREA	B&W	675	BANGLADESH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2-04-01	2022-03-25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2,357	2,544	▼187.00	5,650	1,121
BCI	1,864	1,887	▼23.00	10,485	702
BPI	3,073	3,413	▼340.00	4,328	1,325
BSI	2,755	3,020	▼265.00	3,624	973
BHSI	1,695	1,782	▼87.00	2,062	61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853.00	▼50.50	873.00	▼54.00	857.50	▼66.00
MGO	1076.00	▼46.00	1084.50	▼159.50	1107.00	▼79.50
LSMGO	1060.50	▼69.50	1098.00	▼144.00	-	-
IFO380	670.00	▼20.50	647.00	▼48.50	657.50	▼65.00

❖기준일 : 4 월 1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2-04-01	2022-03-25	CHANGE
미국 달러	1210.70	1219.40	▼8.70
일본 엔(100)	993.88	996.53	▼2.65
유로	1340.55	1342.38	▼1.83
중국 위안	190.44	190.91	▼0.4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카플레이션

'CAR(자동차)'와 'INFLATION(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초과 수요 등으로 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뜻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 기사] 3 중고에 '카플레이션' 심화... 멀미나는 소비자

우려하던 '카플레이션(CAR+INFLATION, 자동차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현실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테슬라는 이달에만 특별한 성능개선 없이 자동차 가격을 두 번이나 인상했다. 현대자동차와 벤츠 등 다른 완성차 업체도 잇따라 가격을 올렸다. 방아쇠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당겼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 기름을 끼얹었다. 신차 출고 지연도 빈번하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이달에 계약하면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제네시스 G90은 9개월, GV60 전기차는 1년을 대기해야 한다.

테슬라는 지난 11일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100만~200만원 인상했다. 이어 15일에 모델 3 롱레인지는 350만원, 모델 Y 롱레인지는 310만원 올렸다. 불과 나흘 새 두 번이나 가격을 높인 것이다. 지난해 2월 출시 당시 6999만원이던 모델 Y는 8499만원이 됐다.

현대차 상황도 비슷하다. 현대차가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가격은 4759만원이었다. 1년 전의 4183만원보다 13.8% 뛰었다. 벤츠 C 클래스는 5510만원(최하위 트림 기준)에서 올해 6150만원으로 상승했다.

카플레이션의 공습은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지난해에만 무려 10여차례 가격을 올렸다. 심지어 실제 판매는 정가보다 더 비싸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개인 고객이 구매한 신차의 87%는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는 지난달에 전기차 가격을 최고 7000위안(약 134만원) 올린 데 이어 지난 15일 다시 3000~6000위안(약 57만~115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히자동차는 최근 전기차 가격을 3000~7000위안 높였고, 전기차 스타트업 링파오자동차는 모델 C11 가격을 한 번에 3만 위안(약 575만원)이나 인상했다.

자동차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이 자리한다. 코로나 19로 주머니를 닫았던 소비자들이 지난해 보복소비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도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카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다. 30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니켈 가격은 지난 25일 T당 3만 5555달러(영국 런던금속거래소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29일(1만 6259달러)보다 196%나 폭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알루미늄, 팔라듐, 리튬 등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VI. ISSUE & TREND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인상을 단행한 지난 15 일 트위터에 "최근 원자재와 물류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조원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테슬라 순이익은 전년 대비 665% 증가한 66 억 2000 만 달러(약 8 조 777 억원)에 이르렀다. 현대차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 6 조 6789 억원을 거둬 2014 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처] - 국민일보



VII.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Email. snp@stlkorea.com	
CEO 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STL GLOBAL CO., LTD.		
Email. seoul@stlkorea.com		
Chartering biz@stlkorea.com	Sancho Kim (이사 김현진) Director Tel. 070-7771-6404	Mike Hong (부장 홍창목)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Fleet Operation biz@stlkorea.com	H.S. Lee (부장 이현성)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Research & Operation snp@stlkorea.com	Anna Lee (과장 이해란) Manager Tel. 070-7771-6403	Joovi Park (대리 박주비)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Henry S.H.Oh (차장 오수현)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 Manager Tel. 070-7771-6407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 (차장 안지영)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Joanne Jin (과장 진정식) Manager Tel. 070-7771-6406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tour@stlgtour.com		academy@stlyacht.com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영하	Tel. 1661-8388 Tel. 070-4800-0151 Fax. 02-6499-8388 www.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진행	Tel. 061-247-0331 Tel. 010-2777-4027 Fax. 061-247-0333 www.stlyacht.com